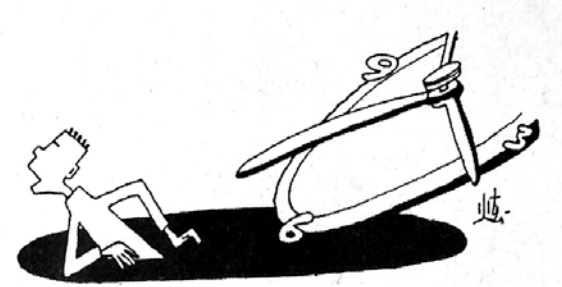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일념정진 할때 중생병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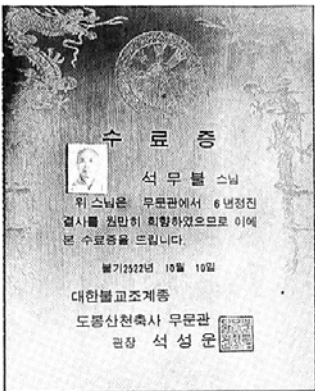
했습니다. 그동안에 관음스님과 제선스님이 두분불출 정진을 하셨던 겁니다.

72년에 나는 6년 두분불출 정진결과에 들어 갔습니다. 무문관의 밤은 넓이 아홉 자와 같이 열자의 큰방이고 그 방에서 다시 세칸으로 나누어져 두 칸은 원공스님과 내가 정진하는 방이고 한 칸은 배설하고 씻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고 6년을 살며 오직 화두만을 들고 건강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정진했던 것입니다. 공양시간이 되면 조그만 구멍으로 식사가 들어 오고 다 먹으면 다시 그 구멍으로 빈 그릇이 나가는, 교도소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살았던 겁니다. 머리와 수염이 자랄대로 자랐지만 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3년간을 기르다 보니 운동하는데도 걸리고 씻는데도 걸리고 그러더군요. 역시 수행하려면 머리

“얇는 것도 아니고 얇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왜 지구 묻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되고 말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부처 아닌 중생이 없는데 부처 못 이룬 중생이 있을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듯 진심으로 자신에게 갖추어진 불성자리를 믿고 정진하는 가운데서 무명의 자물통을 여는 쇠대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가 쇠대가 되어 잠겨진 자물통을 한방에 부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보지 말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나는 철저히 지켰는데 그것도 한 방편이었기에 지금



◇1978년(불기 2522년) 무문관 6년 수행을 성만하고 받은 수료증.

◇72년부터 6년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두분불출 정진을 하고 있는 구암스님. 머리와 수염이 길어 운동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였지만 '이 뭐꼬' 화두풀이에 몰입하다보니 6년 세월도 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무문관 6년 그때 성불하셨는지요”

“그런건 묻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아니죠

말로 표현하면 부처아닌 중생 없는데

무슨말을 듣고 싶습니까”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아닌 비추는 ‘나’ 보십시오”

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의 내 이름은 무불(無不)이었는데 처음의 정지(正智)라는 이름을 버리고 내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문관 정진을 마치고 나오며 나는 '이제 무불은 죽었다'는 생각이 구암(九庵)이란 이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왜 무불이 죽었다고 생각했느냐. 무문관 정진은 그 자체가 생과 사를 절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어 살던 그렇지 못해 죽던 중의 하나가 된다는 각오의 정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정진을 다 마치고 나니 나는 죽어 있더라 말입니다. 성불을 해도 죽고 못해도 죽는 자리에 내가 홀로 서 있었기에 나는 스스로 이름을 죽이고 새 이름을 취했습니다.

내가 무문관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요.

“스님, 그런 스님은 그때 성불을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그런건 묻는 것도 아니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또 물읍시다.

“그래도 6년이나 정진하셨는데 뭔가 얻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책 안본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잠겨진 이 자물통을 여는 데는 여러 방편이 있고 그걸 일심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여러 방편 중에 으뜸이 마음공부요 마음공부의 으뜸은 참선수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는 무문관 정진도 성만했고 지금까지 참선수행을 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참선수행 가운데서도 화두참선을 권합니다.

‘이 뭐꼬’라는 화두를 들고 참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를 일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뭐꼬’ 화두를 드는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화두입니다. 아직 참구가 일어나지 않은 화두로서 이 같은 경우를 사구(死句)라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구라도 일념으로 계속 틀다 보면 깨달음의 소식이 깃들여지고 사구에 생명이 불어 넣어져 활구(活句)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이 뭐꼬’ 즉 ‘이것이 무엇이고’를 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것’이라는 대상을 비추보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물(物)이라는 이

것이 무엇이고, 감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고 등과 같이 바깥 대상세계를 잡고 ‘이 뭐꼬’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바깥 대상세계에 대한 지해가 열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견(見)의 단계이지 관(觀)의 단계가 아닙니다. 화두는 관하는 것이지 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은 육안과 업식으로 보는 것이고 관은 심안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은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을 보며, 기울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보는 것이며, 절대평등을 보는 것입니다. 또 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아를 보는 것이고 손익과 생사와 선악의 단면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관의 단계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 뭐꼬’의 ‘이것’이 바깥에서 주인공으로 환기분처하게 됩니다. 회광반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뭐꼬’에서 ‘보는 이것이 무엇이고’ ‘비추는 이것이 무엇이고’ 등의 주인공자리를 참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번째 단계로서 참구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고’라는 화두를 놓고 무엇이고에 초점을 맞추면

수많은 이해가 열리고 이치가 꿰뚫어지고 지해가 밝아지고 실상자리가 막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교리적 사변이고 학리적 논리이지 본래성품의 드러남이 아닙니다. 초점을 ‘무엇’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맞춰야 합니다. 진정한 실상과 주인공인 부처자리는 ‘이것’에 있습니다. 최상승 화두는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드러내야 하는 실천수행인 것입니다. 초점을 ‘이것’에 맞추면 더이상의 머리굴림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실천하면서 드러내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가 드러나며 거울에 비추는 자가 드러납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추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인식하는 이 놈이 무엇이고”하고 참구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신의 자리 그 오묘한 불성의 자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생사를 거는 정신으로 화두를 붙들고 살아가는 때 순간에 정진하기 바랍니다.

신년벽두, 어ழ지않은 이야기로 귀를 아픈게 하는 이 늙은이는 누구이고 늙은이의 말을 듣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불교와 과학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 불교는 부파불교시대 많은 논장을 저술하여 학문발전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과학은 오랫동안의 실험적 발견을 이룩한 것은

4대와 原子

이 중 허공은 11요소를 성립시키는 정소이다. 임을 부정하고 생사윤회도, 해탈도 무인, 무연이며 인간의 의지는 무력하다고 주장했다.

나타타는 자이나교주로 마하기적 3,4백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전성기에 들어서 있어 여러 다른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물질 관에 있어서 불교와 자연과학의 관점을 살펴보고 한다. 불경은 반대하여 불교의 일관된 주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나라는 대승사상에 압도되어 있어 불교의 다른 사상은 거의 파문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 가능한 원시불교에서부터 그후 변천을 살펴 보면서 균형을 잡아 보려고 한다. 과학의 이해는 별로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 가끔 과학에도 상반된 주장이 있긴 하나 드물

원시불교물질관

4대 물질관 우파니샤드시대 등장 부처님 “일체는 12처에 포섭된다”

다. 과학은 실증적이야 함으로 불리면 즉각 수정된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15세기 바라문(婆羅門)문화가 시작하면서 신의 개념이 나타나고 신은 천, 초, 地の 3계에 33신이 있었다. 이 때는 물질은 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 바라문교는 철학적으로 심화되고 우파니샤드시대에 오면 4대의 개념이 나타난다. 우파니샤드는 태초에 유일할 유(有)가 있어 그것이 육신을 일으켜 地, 水, 火, 風의 4대 요소를 만들고 나아가 복잡한 복합물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물질의 4원소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변하여 많은 것(多)이 되고 그 하나가 많은 것 속에 들어 가 본질이 된다는 전변설(轉變說)을 주장한다.

육체의 지배를 받아 더럽혀지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 정신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석존은 전변설과 직접설을 모두 버리고 독자적인 관점을 편다. 석존은 특별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나 12처(處)설로 물질관을 엮을 수 있다. 석존은 ‘바라문이며, 일체는 12처에 포섭되는 것이니, 곧 눈과 색,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각, 의지와 법이다. 만일 12처를 떠나 일체를 설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만 언설일 뿐이고 물어 봐야 모르고 의심만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12처란 6근, 6경으로 6根은 眼, 耳, 鼻, 舌, 身, 意이고 6境은 色, 聲, 香, 味, 觸, 法이다. 이 12처는 인식체와 피인식체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다. 피인식체인 경계를 인식체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필자소개: 62년 조선대 수학과 졸업, 美 신시나이대학 이학박사, 美 SRI연구 책임연구원,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現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통신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교계 최고의 강사진

교과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특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나. 소정의 법사교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